

재정·기숙사 정보, 추가조치 여부도 확인을

■합격·대기·불합격 통지

대입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 UC는 3월부터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지만 이미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 사립대학 또한 정식 합격자 발표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하지만 이미 일부 학생들에게 합격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에서 합격 발표가 나올 때쯤이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신경이 예민해진다. 어느 사립 고등학교는 서로에게 합격 여부에 대해 묻지 말라는 메시지를 학교 벽에 붙여놓기도 한다. 대학 지원을 한 학생을 둔 학부모가 이곳에 있다면 합격 여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잔뜩 예민해진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면 몰라도 혹시 모를 소식에 대해 조심스러워 해야 할 것이다. 12학년을 둔 많은 학부모들이 서로 각각 다른 합격 통보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하며 문의를 하고 있어 대학 입학 최종결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합격통지

요즘 합격통지는 이메일로 오거나 학교 웹사이트에 올려진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보를 한 후 우편 메일이 오게 된다. 재정보조와 기숙사 정보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오기도 하지만 이메일로 합격통보를 먼저 알리는 것이 통례다. 재정에 관한 관련 링크를 받으면 연결해서 자신의 재정보조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합격통보를 받으면 모든 학교의 합격통보를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어느 대학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내려 5월1일까지 그 대학에 입학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야 한다. 조기지원을 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합격통지가 이미 도착되었지만 대학 등록 여부는 5월1일까지 할 수 있다.

■대기자 명단

합격통지서에 대기자 명단(waiting list)에 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합격통지를 받은 학생들 중 그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으로 입학 결정을 하는 바람에 자리가 생기면 입학을 시켜 주겠다는 의미다. 또한 대학에 따라 대기자 명단에 있을 때 어떤 조치를



대학 합격통지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합격이 되던 불합격이 되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텍사스 대학의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

취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르다.

일부 학교는 지원자를 리스트에 계속 올려줄 것을 요구해야 하기도 하고, 일부 대학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부 대학은 어필 레터를 준비해서 보내야 하기도 하니 각 대학의 경우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지난 몇 년을 보면 대학마다 너무나 많은 입학 대기자가 있어,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 대기자 명단에서 합격통보를 받는 경우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발표되어 있다. 따라서 대기자 명단에서 입학 허가를 받는 확률은 대단히 낮을 뿐더러 5월1일 이후에

합격통보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합격통보를 받은 대학 중에서 일단 입학 결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불합격 통지

불합격 통지가 온다 할지라도 실망할 것은 없다. 예상했었다면 놀라지 않겠지만, 합격할 것으로 예측했던 대학에서 불합격 통지가 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만약 불합격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대학 입학 사무처에 이메일을 해서 알아보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합격 후 12학년 성적을 리뷰한 후 일부 학생들의 경우 다시 불합격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12학년 성적을 적정선 이상 유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봄학기 입학허가

가을학기 입학 허가 대신 봄학기에 입학할 허락하는 통지가 오기도 한다. 일부 대학들이 가을학기에 등록했던 학생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대비하여, 자격요건이 되는 학생들에게 봄학기 입학 허가를 하여 학생을 확보해 놓는다.

반드시 가고 싶은 대학이라면 가을학기 동안 여행을 한다거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듣고 싶은 과목들을 듣고, 혹은 원하는 제2의 대학에 들어가 클래스를 듣고 다시 봄학기로 갈 수도 있다. UC버클리나 USC

등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조건부 입학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지망하였거나 또는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 지망하였을 경우, 다른 건 다 좋은데 학업 성적이나 영어 실력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면 이같이 검토 후 다시 정식 입학시켜 주겠다는 조건부 입학 허가서가 오기도 한다.

학생들 중 일부는 가을학기 시작 전 여름방학을 통해 지정된 과목들을 택하여야 하며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따라 하는 경우도 있다.

■우수 지원자들에 ‘합격 예정’ 메시지

Likely Letter

요즘 일부 학생들에게 날아오는 ‘Likely Letter’에 관한 질문이 있다. 왜 이런 편지가 오는 것인지, 언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인지, 무슨 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학생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인지 알아보자.

먼저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Likely Letter’를 받았다면 축하한다. 이 편지를 받은 일부 학생들과 별개로 이런 내용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은 왜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식적인 합격통지가 나가기 몇 주 전에 보내는 편지다. 이것은 대학 측이 지원자들 중에 일부 뛰어난 지원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입학 위원단이 합격을 예정하고 이 같은 편지를 보내온다.

다시 말하면 지원한 대학에 붙을 가능성이 크니 다른 대학들보다 먼저 고려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편지는 보통 10월 중에 조기 지원자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2월10일경부터 3월에 걸쳐 정시 지원자들에게 보내게 된다.

이 공문의 요점은 “우리는 지원자를 충분히

받아들이려는 결정을 내렸으니 기본 전환의 숨을 쉬어도 된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식 합격통지가 나갈 때까지 긴장하거나 실수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정식 합격통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아이비리그의 스포츠 선수가 될 학생들에게 나가는 편지다. 이 편지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스포츠 선수를 리크르트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보내기도 한다. 스포츠 코치들이 입학 사정실에 얘기를 하고 어떤 선수가 이 편지를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여 입학 사정관들이 마지막 결정을 내려 편지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운동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아이비리그 대학만이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강력한 합격 후보들 중에 스포츠와 상관이 없어도 이런 편지들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지 못한 훌륭한 지원자들이 합격편지를 받을 수 있다. 아직 충분히 리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지는 편지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합격통지를 하는 시기에 보내질 수 있다.

따라서 편지를 받지 못한 합격자들이 더 낮은 지원자 군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분명히 편지를 아직 받지 못한 지원자들은 불안해 할 것이 틀림없다. 이미 이런 편지를 받은 지원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말이다.

‘Likely Letter’를 받은 지원자들도 혼란스러워한다. 내가 과연 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직 합격이 아니라는 말인가? 하면서...

자!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만약 이 편지에 답장을 해달라는 특별한 언급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 편지에 답장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정식으로 합격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받고 희망찬 대학생활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제니 김
(존스 홉킨스대학 교육학석사)
시니어 애드바이저
(어드미션 매스터즈)
1-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수학전문 • 21년 • 수천명 가르친 경험으로

수많은 성공사례

학생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해결) 가르쳐 줍니다

Test 준비

Homework

모르는 부분만 정확히 즉시 해결
근본적으로 수학 잘하도록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학생
특별한 목적, 목표를 가진 학생

- 1:1 개인지도
- 1:2 개인지도
- 특별 Group 지도

* 모르는 것만 즉시 배워서 알고 싶을때,
학생이 준비해 오면 어떤 문제라도 즉시 정확히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줍니다.
* 급한경우, 필요한 경우 1번~3번만 개별적으로
배울수 있습니다.

확실한 효과

- 평범했던 학생이 수학경시대회 수상자로
- F,D,C 였던 학생이 B, A로
- 평범했던 학생이 하버드, 스텐포드 합격자로
- 수학을 싫어했던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으로
- 실수를 너무 자주하고 배운것을 잘 잊어버리니까?
- 공부습관이 나쁘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 응용문제를 못하거나 논리적인 전개과정
능력이 없습니까?

TEACHING 법칙

자체 개발 교재 사용 또는 학교 교과서 사용
교과서 내용위주, 칠판강의
선 응용 후 개념의 법칙, 3단계 System
1시간 30분씩 1주일에 2번 (또는 1번) 수업

* LA, OC 뿐 아니라 CA 전지역
그리고 동부지역, 중부지역 등
타주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최선의 Class

(1) 학교진도 공부 Class

6th~12th, preAlg, Alg1, Geom, Alg2, Trig, pre Cal, (AP) Cal.

(2) Test 준비 Class

6th~12th, preAlg, Alg1, Geom, Alg2, Trig, pre Cal, (AP) Cal.

(3) 예습, 복습 Class

6th~12th, preAlg, Alg1, Geom, Alg2, Trig, pre Cal, (AP) Cal.

(4) 특별한 목적, 목표를 가진 학생을 위한 Class

학생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5) 근본적으로 수학 잘 하도록 하는 Class

논리적인 사고력, 응용력

(6) 중학교 총정리 Class

중학 3년 전과정. 총정리 Course

(7) 고등학교 총정리 Class

고등 3년 전과정 총정리 Course

(8) SAT I, II 수학 Class

핵심, 요점정리, 꼭 알아야할 공식과 개념 200개

수학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Since 1994
필그림 수학 전문학원
LA / OC (213)384-2400

● LA : (213) 384-2400
● Fullerton : (714) 738-5571